



무주군은 오는 16일 무주반딧불야시장을 개장하고, "별보고, 장보고, 만나고"를 주제로 9월까지 진행한다.

“별보고 장보고 만나고”

무주군, 무주반딧불야시장 16일 개장

무주군은 오는 16일 무주반딧불야시장(무주시장상인회, 야시장운영위원회, 시장매니저 주관, 무주군 후원)을 개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반딧불야시장은 매주 토요일(18:00~23:00)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살거리, 즐길 거리를 만나는 기회로, 올해는 "별보고, 장보고, 만나고"를 주제로 9월까지 진행한다. 무주반딧불야시장이 개장하는 16일에는 천마호떡, 사과즙, 도리뱅뱅, 다슬기 전 등을 맛볼 수 있는 로컬푸드 장터와 전통놀이와 아로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저녁 7시부터는 개장 이벤트로 가

수 서지도 등이 함께하는 축하가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야시장 운영위원회 전희영 회장은 "복합문화야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무주반딧불야시장은 맛있고 즐겁다는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올해는 특별히 동호회나 지인모임 등 10인 이상 방문 시에는 할인을 해드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산골영화제(6.21~6.25)와 무주남대천물축제(7.27~7.29), 무주반딧불축제(9.1~9.9)와 함께하는 특

색장터도 마련되며 무주반딧불시장의 문화적 테마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어울림 무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허준철 산업행정 담당은 "반딧불야시장이 청년 창업을 돕는 새로운 일자리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며 "반딧불야시장이 시장 내 기존 상가들과 상생하는 지역화합 명소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했던 반딧불야시장을 다녀간 방문객은 2만여 명으로 1억 3천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6억원 투입 과수농가 소득증대 총력

진안군은 올해 6억여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와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와 FTA,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과수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 타결이후 과수분야 FTA기금으로 ▲관수시설 비기립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8000만원 ▲농약살포 제어장비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2000만원 ▲생산성 기반구축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

다. 또한 고품질 과실생산과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반사 필름지원사업에 2000만원 ▲과수농가 미량요소 지원을 위해 8000만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에 300만원 ▲고가 사다리차 지원에 9200만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군 자체예산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늘려진안 과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덕유산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계곡 출입금지 순찰 강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익사사고 위험이 높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 내 일부 계곡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순찰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을 금지하는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봉안교(상단)~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며, 금지구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수통제시설 설치 및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중환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구역은 이용을 자제하고, 물놀이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강소농가 대상 경영개선 실천 후속교육 실시

무주군이 올해 신규로 등록된 강소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실천 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5일과 25일, 그리고 7월 2일 (주농부 Ritch 조준준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농·식품 소비 트렌드 현황 및 분석, △브랜드 스토리 명함 및 농장 슬로건 만들기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인들은 "강소농으로 성

공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교육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생산비 등 비용절감과 농작물 품질균일화를 위한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의 고객확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 가치창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14일 군민회관에서 '2018년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장수군은 14일 군민회관에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2018년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정책,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젠더&공동체 대표 오미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평등 요소가 반영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인지 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암 마이봉 정상 일원

진안군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과 암 마이봉 정상 일원을 음주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2018. 3. 13)에 따른 것이다. 군은 공원 내 음주 금지구역이 넓게 분포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7일

까지 계도와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산도립공원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도립공원 주요 지점에 탐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도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음주행위

를 할 경우 5만~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했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주(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탐방할 수 있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GWON